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오해옥(여, 1933년생, 성산읍 삼달1리)

- 줄거리: 바보 남편과 사는 아내가 친정 집에 간 바보 남편에게 말을 가르쳐 주어도 바보 남편은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하였다는 우스개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이것도 중간 치기죽. 어느 부자집이 딸을 하나 키우는데, 사위가 하나 들었는데, 사위가 좀 축축헌 사름이라. 겐디 이젠.

[조사자] 축축헌 사름이 어떤 사름?

[제보자] 어중그렁헌 사름. [웃음] 어중그랑하단 말이주게. 그렇다는 거주. 나가 이거 중간으로 곤는디, 하루는 처가집이서, 가시어멍 장모지 뭐, 아판네 보레 오렌 헌 거라. 뱅문안을 오렌 허난, 사위가 처가집을 가난 ㅎ끔 부족헌 사름이난 아무렌도 말을 안 혀네. 이젠 빵 가난, 각시하는 말은 각신 똑똑허난

“뱅문안 가나네 무시거렌 굽디가?”
허나네.

“무시거렌 골아. 속슴행 빤 왓주.”

“아이고 경 혈 거파? 어머님아 어디 아프파 헤그네 영 주물라도 주구, 무시걸 먹어보쿠덴 들음 허고 허주. 그자 그냥 옵니까?”

허난,

“따신 가민 경 허주.”

따시 두 번차는 어, 나가 잊어불언 못 골켜.

아, 개는 세 번차 아픈 거고, 아, 말. 처가집이서가 그 장인어른이 말을 삿이메 오랑 혼 번 보라고, 아, 밧을 삿이메 왕 보라고 허난, 사원 가난 이젠, 밧은 삿는디 가네, 밧은 잘 삿젠편도 안 혀고 못 사젠편도 안 혀고,

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”

그 각시 문저 시킨 대로.

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 어딜로 아프파? 무시걸 해당 안넵니까?”

“아니 이 놈은 자석은 사름뻘이 허단 보난, 또 어떠난 히어똑헌 말 골없이넨.”

허난, 이젠 또 집이 돌아갓이난 각신

“무시거렌 골읍디가?”

허난,

“무시거렌 골아, 저 사름 시키는양 난 골았어.”

허나네,

“무시거렌 골읍디가?”

“밧 사는디 돌아보렌 허난, 어머님아! 어머님아! 무시거 먹쿠겐 골아동.”

왓젠 허난.

“아이고 경 헐 거파? 따시 가거들랑 밧을 훈 번 돌아방, 밧은 물도 골르고 에염
도 좋고 밧이랑 사컨 에염을 보고 사둔을 허컨 가문을 보렌 헌 걸, 경 골양 오죽,
기자 옵디강.”

허난, 이젠

“따시랑 가믄 경 허주.”

허난, 물 아픈데 강 이젠, 물 타보쿠덴 허멍.

“밧은 에염도 좋고, 물도 골루고 곡석 발이라 허염직 허우다.”

경 골으렌 허난 경 골아분 거라. 게난 이젠 각신

“무시건 골읍데가?”

허난,

“곧는양 골았주.”

허난,

“아이고 경 헐 거파?”

나가 이젠 이 중간 빠젼 골아쳤저.

훈 번은 이젠 또 개가 아픈 거라. 개 아픈걸 오랑 보렌 허난, 이제 각시가

“어떻 헹 무시거렌 골을 거라?”

허난, 어멍이 산 때 시켜난 말을 개 아픈 디 가네, ?만히 눈 뎔 강, 꽁꽁 제멍.

“어머님아! 어머님아! 어딜 아프과?”

갠 깡그랑허난, 개가 꽝을 좋아하지. 깡그랑허난

“깡 먹크라마씀?”

경 헷덴 허주게. 거 옛말 옛말.

- 핵심어 : 부자칩 뜰, 사위, 벵문안, 밧, 개, 바보